

MZ세대 여성의 얼굴 이미지와 헤어스타일 분석

황수빈^{*} · 권기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뷰티아트케어전공 석사과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Analysis of MZ Generation Women's Face Image and Hair Style

Su-Bin Hwang^{*} · Ki-Han Kwon^{**+}

Master's Course, Dept. of Practical Arts,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투고일 : 2023.05.01 / 수정일 : 2023.07.28 / 확정일 : 2023.09.20.

Abstract

They express their own image in diverse ways such as facial contour improvement. For Generation MZ, therefore, hairstyling has been one of self-expression methods and an important means to express their personality and change their image. For this,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against female MZers aged 20-40s living in Seoul. A total of 592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nd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First, to examin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physical traits, hair characteristics, interest in hairstyles, hairstyling patterns and changes in hairstyles,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Second, to analyze differences in physical traits, hair characteristics, interest in hairstyles, hairstyling patterns and changes in hairsty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 chi-squared test was conducted. The above results confirm that physical traits such as facial shape, facial feature and skin color are closely related with hairstyles. It is also found that hairstyles change according to such physical traits.

Key Words: Hair Styles of Women (여성 헤어스타일), MZ Generation(MZ 세대), Physical traits(신체적 특성), Face image(얼굴 이미지)

본 논문은 저자 황수빈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Ki-Han Kwon, +82-2-910-5923, E-mail: kihan.kwon@kookmin.ac.kr

I. 서론

현대 사회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있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증가와 직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들은 외모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¹⁾. 외모의 변화 중에서도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개인의 내적, 외적 및 신체적인 개성을 표현하며, 타인과의 소통뿐 아니라 자신의 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²⁾. 헤어스타일은 외적이미지의 큰 비중으로써 여성들에게 미의 대한 관심이 끊임없는 영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즉,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자신의 미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면서, 여성의 결점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³⁾. 또한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연출하며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⁴⁾.

MZ세대는 디지털문화에 익숙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공(時空)을 초월한 소통을 하면서 정보의 교환과 소비행태를 보인다⁵⁾. 즉, MZ세대 여성은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및 펀터레스트(pinterest)와 같은 SNS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를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새로운 헤어스타일 및 스타일링 기법을 배우고 따라 하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문화와 유행을 공유하거나 선도하는 특성이 있다⁶⁾. 또한 MZ세대 여성들은 익숙한 디지털 환경을 통해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면서 성장한 세대로써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도도 뛰어나다. 이와 같이 MZ세대 여성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통시장에 강력한 영향

을 주고 있다⁷⁾. 이에 따라서 MZ세대에서의 헤어스타일 관리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외적 이미지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써의 자기 표현 방법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다. 한효주의 여성 헤어스타일 결정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20~40대 여성의 헤어스타일 인식도와 선호도 연구⁸⁾에서는 여성들의 헤어이미지 선호도와 헤어스타일 연출성향의 선호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고, 김미선의 헤어스타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헤어태도에 관한 연구⁹⁾에서는 헤어스타일 변화의도에 영향을 미친 후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영애의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이 헤어스타일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¹⁰⁾에서는 헤어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헤어스타일 결정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강수희의 헤어스타일별 시술주기와 헤어스타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¹¹⁾에서는 미용실 손님들의 헤어스타일 관찰을 통하여 헤어스타일 변화 주기와 관련 요인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MZ세대 여성은 중심으로 얼굴 이미지와 헤어스타일의 분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문화에 익숙하며,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SNS를 통한 핵심 소비 주체로서 등장한 MZ세대 여성의 얼굴 이미지와 헤어스타일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MZ세대라는 20대 초~40대 초를 통칭하는 세대 여성들의 얼굴 이미지와 헤어스타일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면서, 본 연구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시술할 시 고객들의

신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MZ세대

MZ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1990년 중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 M)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 세대(generation Z)를 통칭하는 세대이다¹²⁾. 밀레니얼 세대(M)와 Z세대(Z)는 ‘디지털 세대’로써 디지털 문화를 사용하며 자라난 환경의 세대로써 이들을 묶어서 MZ 세대라고 한다¹³⁾. M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격적으로 사회로 진출하면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연령과 앞으로의 경제 활동 및 소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세대가 합쳐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⁴⁾. 또한 새로운 환경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SNS를 활용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소비 주체로 발디딤하고 있다¹⁵⁾.

2. 여성의 얼굴 이미지와 헤어스타일 분석

헤어스타일은 머리카락의 모양, 머리 꾸밈새, 머리 형태 등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여 창출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외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헤어스타일로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¹⁶⁾. 헤어스타일은 사람마다 다 다른 골격과 두상을 가지고 있

는데, 이것의 단점의 개성으로 보완하므로써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헤어스타일은 신분에 따른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함에 있어서의 수단이었지만, 현대에는 미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여 자신감을 높여주는 심리적인 작용도 하고 있다¹⁷⁾. 또한 단순히 헤어스타일의 아름다움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얼굴형, 얼굴의 생김새, 얼굴색, 체형 등과 전체적인 몸의 실루엣을 조화롭게 이루어내고 있다. 또한 헤어스타일의 완성으로는 아름다운 부분을 강조하며 결점을 보완시키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선 신체의 기본적인 요소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¹⁸⁾.

얼굴의 형태는 헤어스타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얼굴의 넓이, 턱선의 길이, 이마의 길이, 얼굴의 높이 등 여러 가지의 조건에 따라 길이를 재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Fig. 1>과 같이 얼굴형은 크게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역삼각형, 삼각형, 다이아몬드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Fig. 2>와 같이 얼굴의 생김새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얼굴의 선 즉, 볼살, 광대, 이마, 아래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얼굴의 생김새는 주로 이마와 턱, 얼굴길이와 폭, 광대뼈의 돌출, 볼살의 형태에 의해 시각적 요인으로써 분류되어지고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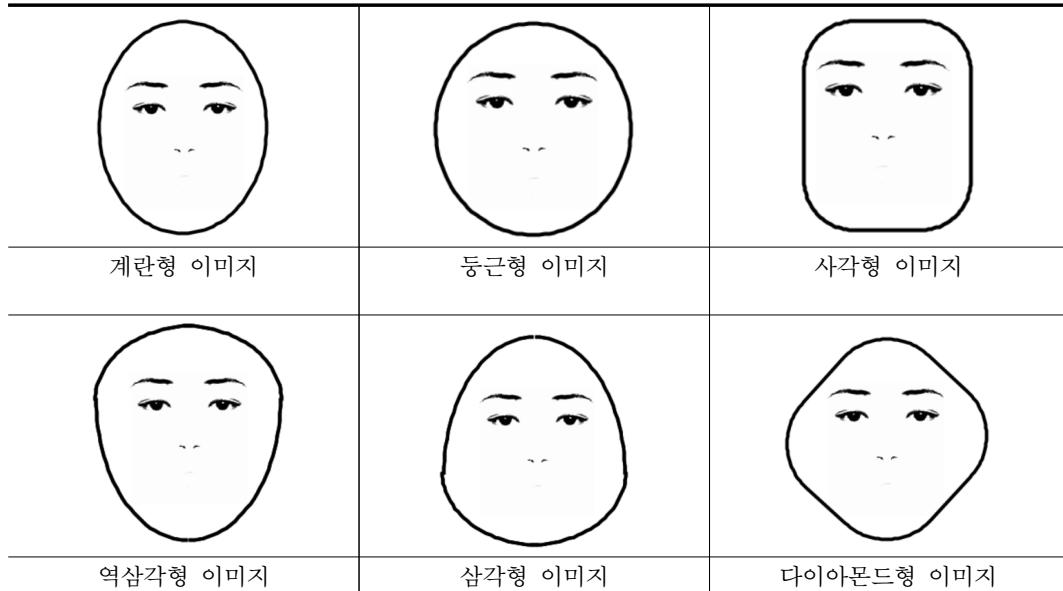
피부색에 따라 헤어컬러도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는데 사람의 피부색은 각기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어 그 색에 맞는 개인 이미지를 유형화하기 위해 색채디자인 개발 연구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²⁰⁾. 모발의 색은 피부색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모발의 색상이 어두울수록 피부의 색도 어둡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피부색과 관련 짓자면 검은 피부는 어두운 모발인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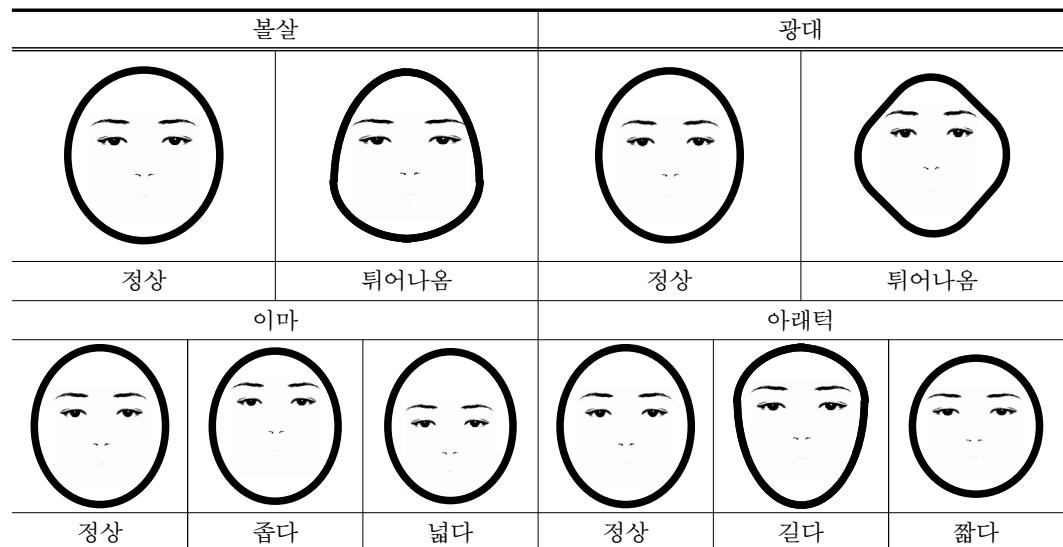
많으며, 흰 피부는 밝은 모발과 관련성이 높다²¹⁾.

<Fig. 3>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전반적



〈Fig. 1〉 Face shape



⟨Fig. 2⟩ Facial fea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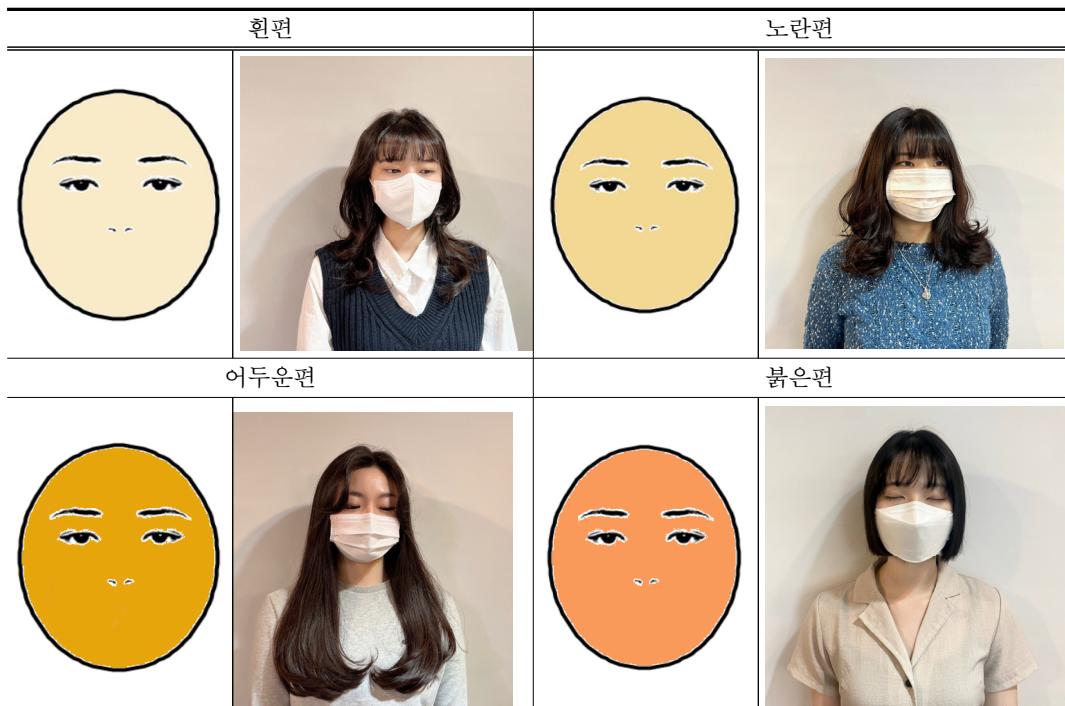
으로 모든 컬러가 잘 어울리지만, 자칫하면 블랙이나 퍼플 같은 차가운 계열은 창백해 보일 수 있다. 사계절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봄이나 여름에는 따뜻한 컬러인 밝은 갈색으로 염색하게 되면 부드럽고 생기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가을이나 겨울에는 밝은 머리보다는 톤다운된 컬러나 딥한 매트한 컬러가 더 부드러워 보인다.

두 번째로는 노란 계열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본래의 헤어 컬러보다 한두톤 정도의 컬러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붉은기가 살짝 도는 브라운, 부드러운 브라운은 피부색을 더욱 밝고 건강하게 해준다. 하지만 어두운 블랙으로 염색하거나 밝은 갈색으로 염색할 경우 얼굴이 더욱 노랗

게 떠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해주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어두운 피부는 와인 계열과 브라운 계열이 가장 무난하게 잘 어울린다. 모발을 밝은 색으로 염색하게 되면 머리를 더욱 부각시키고 피부색을 탁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얼굴 빛과 비슷하게 어두운 컬러로 선택하게 되면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붉은 피부톤에는 차가운 컬러가 잘 어울린다. 여드름 자국 또는 홍조 때문에 붉은 피부가 고민이라면 차가운 계열의 컬러는 얼굴의 붉은기를 잡아준다. 브라운의 컬러도 잘 어울리지만, 레드 컬러로 염색하게 되면 얼굴의 붉은색이 더욱 부각되어 보일 수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



〈Fig. 3〉 The color of the color of one's skin

3. 여성 헤어스타일의 종류

헤어 커트란 가위로 모발의 길이를 조절하여 자르고, 모발의 양을 정리하며 헤어스타일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영어로 커트(cut)는 ‘자르다, 절단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커트란 모발의 길이와 볼륨, 질감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해 모발을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²²⁾. 헤어형태의 기본형으로는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솔리드형(solid), 그레쥬에이션 형(graduaion), 유니폼 레이어형(uniform layer), 인크리스 레이어형(increase layer)으로써 단독 또는 혼합으로 응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퍼머넌트 웨이브란 일반적 모발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웨이브를 만드는 것으로, 폼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즉 “연속적인 파도와 같은 움직임”이라는 뜻으로도 불린다.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로는 제 1제로 시스틴 결합으로 절단 작용을 시켜준 후, 롯드를 이용해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형성된 웨이브의 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제 2제로 시스틴으로 재결합을 하게 되면 반영구적인 웨이브가 완성이 되는 원리이다. 폼은 크게 일반 폼과 열 폼(세팅 폼, 디지털 폼, 매직스트레이트 폼)으로 나뉜다.

업스타일(up-style)이란 사전적 의미로 머리를 높이 빗어 올려서 목덜미를 드러내는 헤어스타일을 의미하며, 여성스럽고 우아하며 입체적이고 예술의 형태로써 아름다움의 표현 창출을 위한 스타일링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업스타일은 머리를 높이 빗어 올리는거 뿐만 아니라, 모발을 떳거나 꼬기, 혹은 한가지의 중심점을 만들어 목덜미 위로 어느 한 곳에다 고정시켜서

아름답고 두상에 어울리도록 연출시키는 것까지도 업스타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업스타일은 헤어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연구 영역, 능력 등이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생활 속에서 발상의 영감과 섬세하게 표현하는 역량을 키우며 두상, 얼굴형에 맞게끔 미적 예술의 스타일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²³⁾.

헤어 컬러 즉, 염색은 자연의 모발색에 인위적으로 색소를 침투, 치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발의 염색은 머리색을 더 예쁘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써 색을 입히는 것이며, 모발의 탈색이란 멜라닌 색소를 빼내는 것이고, 탈염이란 모발색에 인위적으로 색을 넣은 것을 빼내는 작업을 말한다²⁴⁾. 자신의 맞는 색을 선정하여 모발에 적용하게 된다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 해서, 본인이 원하는 인상 또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염색은 헤어의 관리유형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변화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다²⁵⁾.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얼굴 이미지와 헤어스타일 분석에 대해 MZ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MZ 세대의 헤어스타일은 일반적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MZ 세대의 헤어스타일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인가?

연구문제 3. MZ세대의 헤어스타일은 모발특성에 따라 다를 것인가?

연구문제 4. MZ세대 헤어스타일은 여성들의 관심도와 헤어스타일링에 따라 다를 것인가?

연구문제 5. MZ 세대의 헤어스타일은 변화에 따라 다를 것인가?

2.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초의 MZ세대 여성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응답한 592명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13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592부 가운데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된 16명을 제외하고 총 576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측정도구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WIN 26.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 모발특성, 헤어스타일 관심 및 헤어스타일링 실태, 헤어스타일 변화에 대한 응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특성, 모발특성, 헤어스타일 관심 및 헤어스타일링 실태, 헤어스타일 변화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의수준 $p<.05$, $p<.01$, $p<.001$ 하에서 검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대가 280명(48.6%), 30대가 225명(39.1%), 40대가 71명(12.3%)이었고, 혼인 상태로는 미혼이 418명(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혼인이 143명(24.8%), 기타가 15명(2.6%)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일반직장인이 215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가 133명(23.1%), 학생이 78명(13.5%), 자영업이 65명(11.3%), 전업주부가 61명(10.6%), 공무원이 24명(4.2%) 순이었으며, 경제수준으로는 중이 376명(65.3%)으로 가장 많았고, 하가 144명(25.0%), 상이 56명(9.7%) 순이었고, 교육 수준으로는 대재 또는 대졸 이하가 284명(4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이 214명(37.2%), 고졸 이하가 78명(13.5%)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Statistics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280
	30대	225
	40대	71
혼인 상태	미혼	418
	혼인	143
	기타	15
직업	학생	78
	공무원	24
	일반직장인	215
	자영업	65
	전업주부	61
	프리랜서	133
경제수준	상	56
	중	376
	하	144
교육수준	고졸 이하	78
	대재 또는 대졸 이하	284
	대졸 이상	214

1.2 신체적 특성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BMI는 정상군이 512명(88.9%)으로 가장 많았고, 저체중군이 49명(8.5%), 과체중군이 15명(2.6%) 순이었으며, 얼굴형의 경우 등근형이 263명(45.7%)으로 가장 많았고, 계란형이 189명(32.8%), 사각형이 52명(9.0%), 역삼각형이 31명(5.4%), 다이아몬드형이 30명(5.2%), 삼각형이 11명(1.9%) 순으로 조사되었다. 얼굴 볼살 생김새를 살펴보면, 보통이 379명(65.8%)으로 튀어나온 197명(34.2%)에 비해 많았고, 광대 생김새의 경우도 보통이 496명(86.1%)으로 튀어나온 80명(13.9%)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얼

굴 이마 생김새를 살펴보면, 보통이 356명(61.8%)으로 가장 많았고, 좁다가 112명(19.4%), 넓다가 108명(18.8%) 순이었으며, 얼굴 아래 턱 생김새의 경우는 보통이 433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좁다가 73명(12.7%), 길다가 70명(12.2%) 순이었으며, 피부색의 경우 노란편이 265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흰편이 160명(27.8%), 어두운편이 94명(16.3%), 붉은편이 57명(9.9%)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구분	빈도(명)	비율(%)
BMI	저체중	49
	정상	512
	과체중	15
얼굴형	계란형	189
	둥근형	263
	사각형	52
	역삼각형	31
	삼각형	11
	다이아몬드형	30
얼굴 볼살 생김새	보통	379
	튀어나옴	197
광대 생김새	보통	496
	튀어나옴	80
얼굴 이마 생김새	보통	356
	좁다	112
	넓다	108
얼굴 아래 턱 생김새	보통	433
	짧다	73
	길다	70
피부색	흰편	160
	노란편	265
	어두운편	94
	붉은편	57

2. 주요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변화 차이

2.1 평소 미용실 방문 목적

헤어스타일 관심 및 헤어스타일링 실태에 따른 헤어스타일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헤어스타일 중요도가 매우 중요하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이 길어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고, 매우 중요한 경우 19.7%

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chi^2=39.553$, $p<.001$), 헤어스타일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경우 머리카락이 길어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고, 매우 높은 경우는 3.4%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98.000$, $p<.001$).

신체적 특성과 헤어스타일의 어울림 정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이 길어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고, 민족하는 경우는 21.3%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chi^2=47.268$, $p<.001$), 헤어스타일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기타인 경우 머리카락이 길어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모발의 색상인 경우는 17.6%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24.834$, $p<.001$).

헤어스타일 결정 시 고려 사항이 기타인 경우 머리카락이 길어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 47.8%로 가장 높았고, 피부색인 경우는 15.9%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chi^2=130.401$, $p<.001$), 헤어스타일링 관리방법에 대해 관리하지 않는 경우 머리카락이 길어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로 가장 높았고, 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11.1%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8.695$, $p<.001$).

〈Table 3〉 Differences in the Purpose of Visiting Hair Salons According to the Interest in Hairstyle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Hair Styling

구분		빈도(명)	비율(%)
헤어스타일 중요도	매우 중요하지 않다	13	2.3
	중요하지 않다	60	10.4
	보통이다	151	26.2
	중요하다	286	49.7
	매우 중요하다	66	11.5
헤어스타일 관심도	매우 낮음	15	2.6
	낮음	103	17.9
	보통	229	39.8
	높음	142	24.7
	매우 높음	87	15.1
신체적 특성과 헤어스타일의 어울림 정도	매우 그렇지 않다	13	2.3
	그렇지 않다	63	10.9
	보통이다	287	49.8
	만족	164	28.5
	매우 만족한다	49	8.5
헤어스타일에 가장 중요한 사항	헤어 디자인	197	34.2
	모발의 길이	108	18.8
	모발의 색상	68	11.8
	모발의 컨디션	188	32.6
	기타	15	2.6
헤어스타일 결정 시 고려 사항	키, 몸무게	76	13.2
	얼굴형	157	27.3
	얼굴생김새	251	43.6
	피부색	69	12.0
	기타	23	4.0

〈Table 3〉 Continued

구분	빈도(명)	비율(%)
헤어스타일링 관리방법	자연 건조한다	57
	드라이기로 건조한다	206
	드라이 룰을 이용해 스타일링한다	85
	열기구를 사용한다	144
	관리하지 않는다	84
현재 헤어스타일 중 커트 유형	숏기장	52
	미디움 기장	290
	롱기장	234
현재 헤어스타일 중 펌 유형	SS컬	59
	S컬	115
	C컬	141
	스트레이트	114
	해당되지 않음	147
현재 헤어스타일 중 업스타일 유형	번헤어	88
	포니테일	121
	하프	144
	해당되지 않음	223
현재 헤어스타일 중 염색 유형	전체	26
	부분	20
	뿌리	86
	여러 가지 색	43
	탈색	43
	해당되지 않음	358

현재 헤어스타일 중 커트 유형이 숏기장인 경우 머리카락이 길어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고, 롱기장은 26.1%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chi^2=58.571$, $p<.001$), 현재 헤어스타일 중 펌 유형에 해당사항이 없는 대상자는 머리카락이 길어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고, SS컬은 0.0%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69.510$, $p<.001$).

현재 헤어스타일 중 업스타일 유형에 해당사항이 없는 대상자는 머리카락이 길어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3%로 가장 많았고, 포니테일은 7.4%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chi^2=89.176$, $p<.001$), 현재 헤어스타일 중 염색 유형에 해당사항이 없는 대상자는 머리카락이 길어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많았고, 여러 가지 색은 0.0%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25.535$, $p<.001$).

따라서, 모든 헤어스타일 관심 및 헤어스타일링 실태에 따라 평소 미용실 방문 목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헤어스타일 만족도

모발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만족도의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발 굵기가 매우 굵은 모발인 경우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3%로 가장 높았고, 가는 모발은 13.4%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chi^2=108.666$, $p<.001$), 모발 형태가 부분적 곱슬인 경우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고, 심한 곱슬

〈Table 4〉 Differences in Hair Style Satisfaction According to Hair Characteristics

구분	빈도(명)	비율(%)
모발굵기	가는모발	82
	보통 모발	241
	굵은 모발	212
	매우 굵은 모발	41
모발 형태	직모	86
	반곱슬	196
	곱슬	87
	심한 곱슬	65
	부분적 곱슬	142
모발의 술 정도	매우 적은 편	10
	적은 편	56
	보통	196
	많은 편	230
	매우 많은 편	84
머릿결 상태	건강하다	180
	손상되었다	396
머릿결 유지 방법	시술을 하지 않는다	61
	모발을 관리한다	48
	헤어제품을 사용한다	69
	드라이를 하지 않는다	46
	모발이 건강하지 않다	352
머릿결 손상 증상	윤기가 없다	60
	모발의 탄력이 없다	115
	푸석푸석하다	183
	쉽게 빠진다	58
	모발이 건강하다	160

은 0.0%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6.464$, $p<.001$). 모발의 숯 정도가 매우 많은 편인 경우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고, 매우 적은 편은 0.0%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chi^2=146.712$, $p<.001$), 머릿결 상태가 손상된 대상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0%로 건강한 17.2%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5.179$, $p<.05$). 건강한 머릿결 유지 방법이 모발을 관리하는 대상자인 경우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고, 헤어제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15.9%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chi^2=29.428$, $p<.01$), 머릿결 손상 증상이 유키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고, 모발의 탄력이 없는 대상자는 15.7%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75.613$, $p<.001$). 따라서, 모든 모발특성에 따라 헤어스타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신체적 특성, 모발특성, 헤어스타일 관심 및 헤어스타일링 실태, 헤어스타일 변화에 대해 MZ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얼굴 이미지와 헤어스타일 분석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 초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한 576부를 SPSS WIN 26.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연령은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일반직장인이, 경제수준은 중이, 교육수준으로는 대재 또는 대졸 이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 특성으로는 BIM에서 정상군이 가장 많았으며, 얼굴형은 둥근형이, 볼살, 광대, 아래턱 생김새는 보통이 가장 많았으며 피부색의 경우 노란편이 가장 많았다. 셋째, 모발 특성으로는 보통모발이 가장 많았으며 굵은모발, 반곱슬이 가장 많았다. 모발의 숯 정도는 많은편이 가장 많았다. 넷째, 헤어스타일 관심도는 보통이 가장 높았으며, 헤어스타일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는 얼굴생김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헤어스타일 변화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헤어 디자인이 가장 높았다. MZ세대 여성들은 얼굴 이미지에 따라 헤어스타일 관심도 및 헤어스타일 변화요인, 헤어스타일링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들의 얼굴형, 얼굴 생김새, 피부색과 같은 신체적 특성이 헤어스타일과 밀접하다는 결과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굴 이미지에 따라 헤어스타일도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효주의 여성 헤어스타일 결정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20~40대 여성의 헤어스타일 인식도와 선호도 연구²⁶⁾에서는 여성들의 헤어 이미지 선호도와 헤어스타일 연출 성향의 선호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연구와 김미선의 헤어스타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헤어 태도에 관한 연구²⁷⁾에서는 헤어스타일 변화 의도에 영향을 미친 후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분석했지만 본 연구는 20~

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및 헤어스타일 변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57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데이터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헤어스타일 및 헤어스타일 변화 요인을 모두 함께 분석해 보려

고 하니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였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 서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다. 추후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특성과 관련지어 헤어스타일에 대해 연구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강은란.(2017). 여성의 헤어스타일 변화와 심리적 만족도.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8(1), p.22.
- 2) 강수희.(2021). 헤어스타일별 시술주기와 헤어스타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
- 3) 김향원.(2011).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4) 박다나.(2019).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헤어 스타일 경향.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5) 김아름.(2022). MZ세대 라이프스타일과 개인 특성, 자아존중감, 헤어관리행동의 관계.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 6) 구다연.(2022). “MZ세대” 여성의 포스트-자기 계발 담론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 7) 하지황.(2022).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여도가 MZ세대의 소비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8) 한효주.(2019). 20~40대 여성의 헤어스타일 인식도와 선호도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9) 김미선.(2011). 헤어스타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헤어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 10) 이영애.(2015). 여대생의 일반적특성이 헤어스타일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11) 강수희.(2021). 헤어스타일별 시술주기와 헤어스타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
- 12) 박시내, 박혜균.(2022). MZ세대의 생활 환경-생활비 원천, 주거실태, <https://kostat.go.kr/synap/skin/doc.html?fn=218143af55ec8f551f5eb3>
- 6663fe406a2b85aeebf9e59902175be7a0079dd
3b5&rs=/synap/preview/board/11918/(자료검색일: 2022.04.23.).
- 13) 성예림.(2022). 소비자의 환경가치관과 비건 화장품 소비가치에 따른 지속소비 가능성.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14) 박현아,이인희.(2022). MZ세대 소비자의 환경 가치가 친환경 화장품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23(2), pp.23-24.
- 15) 하지황.(2022). op. cit., p.4.
- 16) 심경숙.(2019). 여성직업군에 따른 헤어스타일 관리실태와 선호도.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 17) 손지연.(2011).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2.
- 18) 소영진.(2001). 여성의 체형에 따른 조형적 헤어스타일.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2(1), p.107.
- 19) 장윤신.(2021). 중년여성의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이 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 20) 이해령.(2014). 한국 여성의 피부색과 헤어색 명도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 21) 안주영.(2004). 헤어칼라에 따른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성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22) 서선옥.(2011).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인식에 따른 미용서비스 구매행동.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 23) 최지예.(2021). 미용장 응용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9-20.
- 24) 최수정.(2008). 창원시 여성의 헤어스타일링 실태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0.
- 25) 이수빈.(2022). 20대 남녀의 헤어미용 관리유형과 자아존중감의 연관성.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
- 26) 한효주.(2019). op. cit., p.2.
- 27) 김미선.(2011). op. cit., p.3.